

속회자료

2013년 4월 21일 주일 설교 요약

와싱턴한인교회 김영봉 목사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17)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다"(Find the Lost Father)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편(Psalms) 30:4-11

1.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아버지이신 전능자'(Father Almighty)라고 소개합니다. '아버지'라는 말과 '전능자'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아바'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아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격식을 차려야 할 하나님께 가장 격식에 맞지 않는 '아바'라는 호칭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대할 때 이렇게 파격적인 언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그토록 친근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바로 체험하고 그렇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아니라 성품에서 우리는 그분을 닮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아버지들도 대부분 이렇게 무지하고 완고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들의 마음에는 감사와 사랑의 감정보다는 공포의 감정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사랑하고 사모하는 감정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도록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귀에 이상하게 들릴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늘 아버지의 선의와 사랑을 믿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애로운 아버지, 사랑밖에 모르는 아버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마지막까지 다 주시는 아버지, 자식의 죄를 보고 가슴을 쥐어 뜯으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믿어지기 전까지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3.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마음을 한 마디로 말하라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있으나 그 사랑을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그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 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이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요약하면서 '아버지'라는 단어에 '전능자'라는 단어를 연결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바'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은 '사랑밖에 모르는 분'인 동시에 '전능하신 분'입니다. 못 하실 일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 (누가복음서 1:37)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좋은 글들을 남긴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을 "하나님은 아무 일이든 하실 수 있다"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지만, 아무 일이나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든 하실 수 있다고 오해를 하니, 우리의 기도와 소망이 빛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진리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진실로 행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나 자신보다 더 뜨겁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알기 전에 아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든든할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고백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능하신 아버지를 찾으라는 초청입니다.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그 '사랑의 전능자'는 인간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하나님을 만날 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모든 일을 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4.

이 지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전능자시라면, 왜 나에게는 이렇게 시련만 닥치고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말은 '유한자'(the finite)인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유한자로서 우리 인간은 전능자인 하나님의 생각과 처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무능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었던 것을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의문들은 대부분 해명이 됩니다. 다 해명되지 않는 것은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셔야만 할 이유가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5.

저는 시편 30 편이 생각납니다. 이 시편을 썼을 때, 다윗은 심각한 질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아,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 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시편 30:6-7)

하나님이 다윗을 외면했을 리가 없습니다. 다만, 너무도 큰 어려움에 빠진 까닭에 그렇게 느낀 것입니다. 다윗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나를 이 상황에 내버려 두시겠는가?"

다행히도, 다윗은 그 헛된 감정에 속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마침내 그 암흑의 구렁이를 빠져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시편 30:11-12)

6.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전능의 힘으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처한 환경을 보니 그렇지 않다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환경을 보니 그런 것 같아 보입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보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면, 여러분은 필경 큰 시험을 만날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을 보고 쥐었다 놓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환경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계시하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은 환경을 보고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써 환경을 이겨내어 믿음의 진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써 시련과 환난을 이길 뿐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지를 압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기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로 인하여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 같은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소서.
그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게 하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이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오, 주님,
저희에게 이 믿음을 주소서.
아멘.

<속회자료> 2013 년 4 월 21 일 주일 설교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17)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다"(Find the Lost Father)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1.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393 장(통 447)
2.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3. 시편 30 편 전체를 읽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경험을 살펴 보십시오. (10 분)
4. 말씀의 나눔 (한 질문에 대해 15 분 정도를 할애하십시오. 전체 나눔 시간이 90 분을 넘지 않게 하십시오.)
 - 1)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만 말해 보십시오.
 - 2) 당신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 경험은 당신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 3) 당신의 '아버지 상실'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절대자 아버지를 언제 잃었습니까?
 - 4)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하신 아버지'를 다시 찾았습니까? 그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5. 기도
 - 1)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 2) '전능하신 아버지'를 굳게 의지하도록 기도하십시오.
6. 중보기도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각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적어 두고 매일 한 번씩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7.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374 장(통 423)
8.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